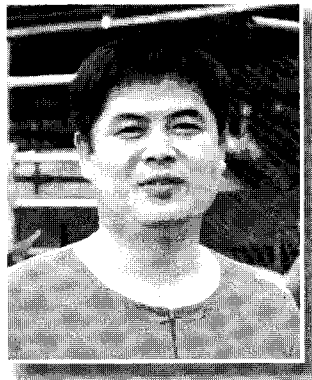


# 사슴 질병과 사양관리의 상관관계

본인은 90년 초부터 사슴의 진료를 배워 청주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사슴의 진료를 해왔으며 지금은 사슴 인공수정 및 검정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고 철 환 수의사  
청주종합동물병원장

양육 농가를 다니면서 여러 형태의 사슴사와 사양관리방법, 먹이 급여 방식 그리고 질병 예방법 등 양육 축산의 전반적인 형태를 접해 보았다. 그러면서 양육 농가별 사양관리 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질병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왔다.

「한국양육」 지면을 통해 본인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질병의 진료 경험에 근거해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질병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부제병

· 부제병이라 함은 발굽의 질병이다.

· 부제병의 발생도 근자에 들어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 목장별로 우수한 종족에서 발생율이 높다. 이는 분명 사양관리와 연관이 없지 않다.

사슴은 본디 야생동물이다. 야생상태에서 이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몸통과 사지의 균형 감각이 뛰어나 순발력과 민첩성이 뛰어나야만 한다. 특히 발의 모습은 극히 작고 그 각도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고 아주 견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야생의 사슴 모습과 현재의 각 농장에서 사육하는 사슴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우선 녹용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비만에 가깝다시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 양육업의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몸의 거대한 하중으로 인해 사슴의 발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되고 이는 지면과의 맞닿는 면적이 넓어



▲ 부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흙을 1년에 1회정도 교체해 줘야 한다.

지게 되며 이것이 사슴 1두당 차지하는 사육공간이 좁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발의 건강을 해치게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우리의 사육환경을 극복하여 부제병 질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 사슴장의 바닥을 긁어내고 새로운 바닥흙(황토+생석회)을 교체시켜주는 것이 매년 부제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사양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해 부제병을 치료한 두 농가의 사양관리방법을 예로 들면, A농가는 5년 동안 한번도 바닥흙을 교체한 적이 없었으며 이에 작년도 부제병이 사육두수의 60%를 차지했다. B농가는 사육환경이 여느 농가와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바닥흙을 교

체하는 관리방법을 택한 결과 15년 넘은 현 시점까지 부제병 발생률이 극히 희박하였다. 그러므로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바닥흙을 교체한 농가의 부제병 발생 %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 2. 난산

본인도 난산을 많이 접해왔지만 난산의 유형으로는 태위 이상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과대 태아도 많다. 이런 난산의 유형은 크게 운동부족과 비만에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곧 우리의 사육환경이 열악해 나타나는 것이다. 운동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있는 농장과 그렇지 못한 농장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만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농후사



▲ 절각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각 전후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료와 조사료의 급여조절로 비만 관리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수사슴의 낙각이 되는 시기부터 암사슴의 비만관리가 이루어지면 순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겨울철 내내 먹이던 사료 급여 방식을 분만에 이를 때까지 급여하는 농가를 많이 접해 왔다. 이런 농가는 난산을 역시 높였다.

과학적인 사양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겨울철과 분만 관리시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양육 농가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암사슴의 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방법이다.

### 3. 교배증후군

교배를 다 마친 종록 사슴이 활력을 잃은 채 생체의 리듬이 비정상적일 때,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금식과 활력을 잃은 채

점점 아위어 가는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되고 이러한 사슴은 초겨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체력저하로 찬 겨울을 맞으며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본인 또한 이러한 경우를 많이 접해왔고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이 또한 모든 양육인들이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능력 있는 종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종록 관리의 원칙은, 첫째, 많은 수의 암놈과 합사시키지 않는다.

둘째, 오랜 기간 합사시키지 않는다.

셋째, 합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 종록에 약간의 의심할만한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분리하여 세심한 관찰과 치료를 실시한다.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과 조속한 조치가 뒤따라 준다면 우수 종록을 잃는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 4. 절각증후군

절각증후군이라 함은 쉽게 말해 절각을 위한 시술 행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 쉽게 회복되어 기립하지 못하거나, 기립을 했음에도 불안한 보행과 감각의 소실이 나타나거나, 이내 생체 리듬과 활동이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절각 후 정상적인 상태인 듯 보이지만 먹이 섭취가 부진하거나 활력이 없으며 활동을 안하는 상태를 보이는 것, 그리고 절각 후 절각 부위의 염증이 발생하거나 경련증상이 나타나는 등 절각 후 나타나는 광범위한 증상 또한 절각증후군이라 칭한다. 이러한 절각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 또한 관리자의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만 할 것이며 몇 가지 준비 및 예방법을 말하면,

- ① 절각전 24시간 금식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 ② 절각장소는 조용해야 하며 사슴이 평온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음관리 및 자리 선택을 배려한다.
- ③ 경험이 많은 전문 수의사에게 절각을 의뢰한다.
- ④ 마취약의 선택시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 ⑤ 응급 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⑥ 새벽 서늘한 시간을 선택해 사슴의 긴장도와 일사병에 대처한다.

- ⑦ 과도한 양의 녹혈 채취는 금한다.
- ⑧ 채혈한 양과 동일한 양만큼의 전해질 제제, 아미노산제제 등 영양제 투여를 해준다.
- ⑨ 염증이나 신진대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주사처치를 해준다.
- ⑩ 사슴이 마취에서 깨어나 기립할 때 충격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스스로 기립하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멀리서 지켜본다. 이는 혈행장애가 있는 사슴을 갑자기 기립시킬 때 다리를 접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⑪ 절각을 마친 사슴이 기립 후 조용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과다한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각 전 자리배치에 신경써야 한다.

⑫ 절각한 날은 금식을 시키면서 수시로 활력 상태를 확인한다.

이런 여러 가지 준비와 관리가 뒤따를 때 절각증후군에서 안전할 수 있다.

위에서 몇 가지 질병을 사양관리 차원에서 서술해 보았다.

우리 양육 축산의 사육 환경이 열악하다 하여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모든 양육인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사슴의 질병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양관리를 철저히 행할 때 더욱 더 발전하는 양육 축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안국영**